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객

보름이 이야기(1)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2013년 10월, 경상남도 양산에 살고 있던 소진 씨는 마을의 초등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

7,8킬로그램쯤 되었을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의 수컷 믹스견이었다. 하지만 소진 씨가 그 강아지를 처음 보았을 때 성별이나 견종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처참한 상태의 피부였다. 털은 듽성듬성 빠져 있었고 털 사이로 드러난 속살은 시뻘겟다. 곳곳이 긁거나 짓무르거나 피딱지가 맺혀 있는 모습, 아무래도 강아지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듯했다.

소진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강아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누군가는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떠돌이 개라고 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꾸 사람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을 봤을 때, 한때는 집에서 키워졌던 강아지가 아닐까 싶었다. 어쩌면 강아지의 몸을 뒤덮고 있는 피부병이 강아지가 버림받은 이유인지도 몰랐다.

처음 소진 씨가 강아지를 보았을 때, 분명히 강아지는 눈치를 보면서도 사람에게 다가오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었다. 꺼림칙하고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들이었다.

“저 물골 좀 봐라. 몹쓸 병에 걸린 거 같은데 저거 사람한테 옮는 거 아يا가?”

“아유, 드러워라. 저거 가까이 오면 우짜노.”

“왜 하필이면 애들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노. 애들한테 병 옮기면 우짤라고.”

강아지를 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혀를 찼다. ‘더러운 짐승이 사람에게 몹쓸 병을 옮길지 모른다’는 불안은 어느

새 ‘더러운 짐승이 몹쓸 병을 옮기고 있다’는 확신으로 둔갑해 있었다. 물론 마을의 누구도 아프지 않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어느 아이도 갑작스런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이 소문을 부르는 사이, 마을 사람들에게 강아지는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고 만 것이었다.

사람들은 강아지가 나타나기만 해도 돌멩이를 던졌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몽둥이를 휘둘렀다. 소진 씨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소진 씨의 마음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과 달랐다. 누군가가 진짜 강아지를 때리거나 해코지할까봐, 소진 씨

는 강아지가 보이면 멀리 떨어져서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시늉을 했다.

‘다른 데로 가래이.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 빨리 도망쳐라.’

강아지가 그런 소진 씨의 마음을 알 리 없겠지만, 소진 씨는 진심으로 강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소진 씨는 낮이면 강아지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내쫓았고, 밤이면 강아지를 찾아서 밥과 물을 챙겨주었다.

강아지는 소진 씨의 이중적인 행동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테지만, 소진 씨는 그렇게 역설적인 모습으로



강아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소진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강아지를 걱정하거나 관심 가져 주지 않았다. 걱정이거나 관심은커녕 핍박하고 구박하는 사람 들뿐이었다. 그래도 강아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갈 곳 이 없어서인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소진 씨를 만나지 못할 때면 강아지는 밭에 심어놓은 배추 나 무 뿌리를 캐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해가 지고 선 생님과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강아지는 그제야 학교로 돌아와 텃밭에 흙을 판 뒤 그 속에서 웅크려 잠들었다. 사람에게 다가오고 싶어 했던 강아지는 돌멩이와 몽둥이세례를 일 상처럼 겪으며 어느새 사람들을 슬슬 피해 다녔다.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그냥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멀찍이서 서글픈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강아지는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강아지가 보이지 않을 때면 소진 씨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강아지가 멀리 떠났기를 바랐다. ‘그저 내가 챙겨주는 밥이나 배불리 먹다가 어딘가에서 고통 없이 죽기를...’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잔인하게 느껴지면서도, 소진 씨는 가끔 그런 바람을 갖곤 했다. 강아지에게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굶주리지 않고 고통 없이 가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다.

소진 씨가 익히 보아온 시골 개들의 삶은 행복이나 안락함과 는 거리가 멀었다. 어떤 개들은 한평생 짧은 목줄에 매여 집만 지켰고, 어떤 개들은 성견이 되자마자 잡아먹혔다. 또 어떤 개

들은 주인이 있어도 방치 되다시피 혼자 떠돌 아다녔다.

산책도, 놀이도, 교감도, 대부분의 시골 개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들 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 보호자도 없고 피부병까지 걸린 강아지에게 소진 씨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다. 굶주리며 살지 않기를, 죽을 때는 고통 없이 떠나기를.

“아무래도 저저 보호소에 신고해뉘려야겠다.”

아무리 내쫓아도 강아지가 마을을 떠나지 않자 누군가 보호 소 이야기를 꺼냈다. ‘병 걸린 짐승이 아이들한테 병을 옮긴 다’는 말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불안감을 퍼뜨리는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강아지를 내쫓을 당위성은 충분한 셈이었다.

이제 강아지는 언제 보호소로 끌려갈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보호소에 들어간다면 중형 믹스견에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는 강아지는 입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공고기 간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안락사 1순위가 될 것이 뻔했다.

소진 씨가 지인과 함께 강아지를 붙잡은 것은 그즈음이었다. 보호소 이야기가 나온 이상 더 이상 구조를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온갖 핍박과 구박만 당하다 주사 한 대에 삶을 마감하기엔 강아지가 너무 가여웠다.

강아지는 소진 씨의 추측대로 집에서 자라다 버려진 듯했다. 추정 나이가 두 살이 채 안 된 강아지는 중성화수술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역시 피부병이 이유였을까. 강아지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피부병, 치찰한 물골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병은 모낭충이었다.

소진 씨는 강아지에게 ‘보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 힘겹고 고통스럽던 삶을 끝내고, 사람들에게 사랑 받으며 보름달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었다. 소진 씨는 다음(daum)의 ‘희망해’ 모금을 통해 보름이 의 모낭충 치료를 마련하는 한편, 신생 유기견 구조 단체인 텅커벨 프로젝트에 구조 요청 글을 올렸다.

얼마 후 희망해에서는 보름이의 치료를 위한 모금이 시작되 었다. 텅커벨 프로젝트에서는 이 강아지의 구조 요청을 받아들 였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텅커벨 프로젝 트를 통해 알게 된 경남, 부산 지역 회원들의 도움으로 보름 이가 서울의 동물병원으로 가던 날, 소진 씨는 보름이를 쓰다듬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보름아, 이 경상도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건 보통 행 운이 아니데이.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발길질하고 몽둥이질 하던 그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사랑받던 강아지였 던 것처럼 꼭 그렇게 살거래이...’ ▼

